

김학영

본회 회원, 기독교유아교육연구회 회장,
국제보육교사교수, 하예성어린이집 원장

유아교육에서의 기독교교육의 문제

I. 들어가는 말 : 우리 나라 기독교 유아교육의 현상 및 문제

선교사들이 기독교 선교 목적으로 유치원을 설립한 데서 출발한 우리나라의 유아 교육은 유치원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의 설립으로 발전하여, 이화대학과 중앙대학에 유아교육학과가 생기게 되었다. 이 시기의 선교사들은 미국 유치원 교육의 이념이었던 프리벨의 교육원리 및 방법에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주로 프리벨이 신에 대하여 강조한 부분들로서 이는 해방 전까지 우리 나라 유아교육의 철학적 배경이 되고 있었다. 1920년부터 미국의 유치원 교육에서는 듀이의 생활중심, 경험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는 진보주의 교육 영향과 아동연구운동으로 인해 개혁유치원 교육과정의 실시되었으며, 이는 선교사들의 잦은 본국왕래를 통해 우리 나라 기독교유치원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프리벨의 기독교교육사상과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의 영향은 어떤 것이며, 바른 기독교교육을 위해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

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프리벨의 교육사상

프리벨은 아동의 본성과 세계관에 기초하여 그의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프리벨 철학의 기본 개념은 사물의 '통합 개념'이며, 그는 세상의 모든 만물은 신의 조화이며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신, 인간과 자연의 통합을 이룩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유아에게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무엇을 부과하거나 수정하기보다는 자연 그대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아동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전개해 주기 위해 상징적 활동들을 권장하며 은물(Gift)라는 교구를 만들었는데, 작업, 게임과 노래, 자연학과 언어, 수교육 등을 교육내용의 기본요소로 주었다.

은물은 10가지 종류로 제 6은물까지는 공과 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입방체들을, 제 7은물부터는 평면을 주로 다루어 선(線), 각(角)들의 조합을 이루었다. 작업은 주로 점토, 나무, 두 개의 종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거나 종이 뜨기, 종이 접기, 종이 오리기 등을 통해 평면과 선, 각을 경험하게 하였다. 게임과 노래는 '엄마놀이와 노래'를 중심으로 하여 율동, 손유희도 함께 다루었다. 또한, 손을 잡고 원형을 만들어서 하는 게임을 통하여 통합의 개념을 나타내려고 하였다. 자연학은 과학적인 탐구나 개념을 길러주기보다는 동식물의 관찰과 자연의 경이에 대한 관찰을 통해 종교적인 개념을 길러주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성인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유치원 때부터 아동을 존중하고, 수동적인 학습보다는 놀이를 통한 신체적인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노작교육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유아교육사에서 프리벨의 신관과 그의 교육제도는 범신론과 신비주의의 사상 위에 구축되었다고 논평되어 진다. 성경적 유일신론적 관점과 반대되는 범신론은 '모든 만물이 신이다'라는 뜻으로 유일신론과 달리 세계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런 범신론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을 흐릿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인간을 위한

성령의 사역을 충분히 제기하지 않는다. 프뢰벨 역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 보며 특히 어린이를 단지 받아 들이는 자로만 보지 않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존재로 여긴다. 그러나 그는 어린이의 전적타락 교리는 받아 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프뢰벨은 첫번째 인간의 상태에만 초점을 맞추고 타락한 이후의 인간 상태에 대해서는 경시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관점으로부터 창조 당시의 인간의 상태와 타락 이후의 인간 상태에 대한 이중적 지식을 가져야 한다. 타락 이후의 인간은 도덕적으로 사악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이 같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며, 우리는 이 글의 뒤에서 그렇지 못한 현재의 기독교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2) 듀이의 교육사상

듀이의 실용주의는 유아교육의 철학적 기초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인간과 환경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개념을 중시하여 교육의 원리로 상호작용, 변화, 계획성을 들고 있다. 교육은 경험을 통한 지속적인 개조과정이고, 생활은 성장하는 동안의 지속적인 경험의 재구성인 동시에 사회적 과정이라고 보았으며, 놀이는 매일매일의 경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아동의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줌으로써 아동의 발달을 이르게 한다고 보았다.

듀이의 이러한 영향은 아동연구운동과 함께 1920년대 개혁유치원을 구성하도록 이끌었으며 단원학습과 흥미영역의 개념을 강조하였다. 단원 학습에는 계절과 휴일, 가정, 우리동네, 경찰관, 소방서와 같은 주로 일상생활과 주변의 지역사회에 초점을 두어서 소개하고, 흥미영역으로는 소꿉놀이, 목공놀이, 미술, 과학, 도서와 그림 맞추기 등으로 유아가 스스로 활동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개혁유치원의 교육내용은 (1)

자연 물체와 현상-자연학 (2) 인간과 인간의 활동-가정과 지역사회 (3) 문학, 음악과 미술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배경에 있는 듀이의 인간관, 아동관의 개념이 기독교의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이후에 다루어 기독교교육의 문제를 알고 그 해결방법을 생각해 본다.

기독교 교육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듀이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일반 유아교육과 차이점이 없게 된다. 한국 유아교육이 프리벨 중심의 기독교유아교육에서 출발했으면서도 유아기독교교육의 본질이 왜곡되어진 이유가 이렇게 듀이의 교육이론에 더 영향을 받은 때문이라 생각한다.

위의 내용에서도 언급했듯이 실제 유아교육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프리벨과 듀이의 주장이 서로 비슷함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유아기독교교육에서 어떤 것이 강조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프리벨의 교육이념에서 기독교적 배경이 미흡하였던 (1) 신관에서 하나님의 창조,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2) 아동관에서 타락한 이후의 인간 상태를 어떤 관점으로 교육에 반영시켜야 하는가 (3)교육에 있어 통합의 개념, 아동중심교육 등에 대한 개념들을 교육이 실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 보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II. 기독교교육에로의 회복을 위한 고찰

(1) 하나님의 창조와 유아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은 고도의 지식, 기술적 자원의 증대를 통하여 유익을 취하는 것과 함께, 기독교학교의 교육목적에 분명히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본질적이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계시자, 구속주를 교육의 출발점으로 삼고, 성경, 피조물, 섭리 안에 있는 그의 계시에 적절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할수록 비성경적인 누룩도 그 위장술이 더욱 교

묘해지므로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갈 5:9)” 전체를 못 쓰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

비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해냈다고 믿지 않기에 어린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며 어린이로 하여금 우주와 대면하도록 이끄려고 한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있는 존재로 창조된 점을 무시하거나 부정한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인본주의적이거나 인간중심으로 되며, 교육의 목적이나 목표는 인간의 환경에 대한 ‘기능적 조정’ 역할을 중심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사람이 길의 향방을 알지 못하고 안개 속을 헤매인다면 어떻게 속도를 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계시가 유입되지 않는 한 ‘사실들’이 실로 어둠 속에 처해 있게 되므로 참되게 알거나 가르침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교육과정의 계획이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세계를 보살피는 우리의 활동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어 보이기를 기대하신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지만, 피조세계의 다른 것들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과정은 인간 중심이 되어야 한다. 비기독교교육에서는 ‘전문가’의 권위를 말하지만 이는 진정한 권위가 되지 못한다. 유아 기독교교육에 있어서는 인간창조주로서의 하나님과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의 개념에 기초한 권위를 필요로 한다.

현재의 모든 교육프로그램은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인격을 낳는데 맞추어져 있다. 초인간적인 인격(들)에 관하여 말하면서 ‘인격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완전한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을 상상하지 않는 한 적절치 못하다.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하고, 흔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를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린이가 초청받는 현재의 교육의 장은 궁극적으로 비인격적이며 상반된 환경을 전제하고 있으며, 기껏해야 그 교육프로그램의 설계자가 스스로 설정하고 스스로 궁극적인 판단을 하는 교육이

상의 구현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성경은 죄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으로 정의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법적인 관계의 가능성과 실현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건전한 죄의 교리는 없게 되며 이럴 때 이 세상의 악을 다루는 유일한 길은 악을 우리의 구조적 실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어떤 윤리나 도덕이 이러한 비인격적인 것에 기초해서 가르쳐질 때 이 교적인 윤리나 도덕이 되어 버리며 참된 기독교적인 사실은 배제되고 만다. 또한 우주에 대한 비인격적인 개념은 필연적으로 모든 것을 절대적 상대주의로 이끌어 가게 된다. 이렇게 상대주의적인 기반 위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에게 상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지 못하고 하나님도 사람보다 높지 못하다면 누가 어느 한쪽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이런 철학 하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 어린이는 실제로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을 터득하게 된다.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문의도 없이 현실을 해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왔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의 유추이며 우리의 지식이 진리임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살고 거동하며, 우리의 존재를 갖는다. 오직 성경만이 인간이 창조된 원래의 계시적 분위기 속으로 사람을 복귀시키는 수단이 된다.

(2) 그리스도의 구속과 유아기독교교육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기독교 유아교육은 추상적인 것에다 또 다른 추상성을 가르치는 끝없는 공허한 추상의 진행에 불과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구속의 프로그램은 모든 역사의 가르침의 중심에 놓인다. 또한 자연도 역사와 관련되어질 때에만 구속받은 인간의 교육과정에 바로 위치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만 시-공간 세계의 어떠한 사실도 완전한 하나님의 인격과 관계를 맺게 된다. 이렇게 될 때에만 교육의 내용으로부터 교육의 형식이 추상적으로 분리되는 일이 없게 되며, 교육은 실로 구체적일

수 있으면서 마땅히 강조되어야 할 내용을 선정할 수 있고, 자연은 하나님 이 움직이는 그림책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어 기독교교육을 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다.

(3) 성령의 사역과 유아기독교 교육

기독교교육에서 인간도구의 역할을 배제하고 초자연적인 요소만을 강조 함은 잘못이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함을 배제하고 인간 교사의 역할 만 강조하는 것도 잘못이다. 교육과 학습의 법칙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 시다. 모든 교사들은 이 원리를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성령께서 교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사용하시도록 허용하는 정도에 따라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진다. 자신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많은 결 실을 맺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어린이에게 진리와 실생활이 관련지어짐 과 이 관련을 실제로 경험 속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분이 성령이심을 알게 해야 한다. 이로 인해 어린이의 생활이 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인간적 요소와 성령의 사역의 요소가 얽혀져서 인간은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 게 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친히 교사와 지도자로 역사하셔서 교사와 어린이를 돕고 계심에 의존할 수 있어야 한다.

(4) 기독교적 인간관 및 아동관

어린이는 열려진 가능성의 무한한 연속성 앞에 놓여야 함이 분명하며, '인격의 통합'이라는 교육과정에 어린이가 예측되기보다는 오히려 어린이 가 그러한 속박을 벗어날 때 인격이 통합으로의 발전의 기회를 갖게 된다 고 할 수 있다.

a) 인격에 대한 기독교적 개념

인격은 시-공간적 사실이다. 이 우주 속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놓이지 않고는 알려질 수 없다는 사실이 인간 인격의 경우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 인격은 전적으로 자족적이어야 하는데 인격이 유한한 의미로 파악되었다면 이것은 비인격의 배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인격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서이다. 만약 유한한 인격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위치에 있지 않음으로써 유한한 인격이 배워야 하는 '사실들' 혹은 유한한 인격이 조정받아야 하는 환경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않은 위치에 두어진다면 지식의 주체와 객체 사이에 어떤 결실 있는 접촉도 가능할 수 없다. 정말 지식을 가지려 한다면 알려는 자와 알려져야 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과 접촉해야 한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둘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

b) 어린이에 대한 진화론적 입장과 기독교적 입장

우리는 어린이는 교육에 포함된 모든 일들의 표준과 척도가 되며 어린이에 대한 고려가 교육요건을 결정짓도록 해야 한다는 현대 진화론적 교육학에 맞서서 논쟁해야 하는가? 또는 그러한 요소 역시 어린이의 교육을 위하여 애쓰는 바른 학교를 향한 우리의 자세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화론적 입장을 열거해 보며 검토해 나갈 수 있다.

즉, 어린이는 고등동물들과 큰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명백한 진화의 산물로서 어린이의 정신 형성이 동물적 기원을 갖고 있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앞으로의 교육방향을 지시해 준다. 어린이의 삶에는 많은 불완전성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단지 숙달에 이르기 위하여 투쟁하는 저급한 동물적 경향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어린이는 근본적으로 선하지만 적당한 환경과 현명한 지도 아래 있을 때 자연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발달해 나간다.

또한 어린이는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되었으며 어떤 경우에도 이상에 도달할 수 없다고 가르침 받아서는 안되며, 자신 속에는 최대의 윤리적 이상에 이를 수 있는 자연적인 추진력이 있음과, 악을 극복하는 도덕적 완전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이 있음을 각성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종교적 신비나 심오한 신학적 진리와 같은 자신의 이해를 넘어선 것들을 배우도록 강요받아서 안되며, 다만 그가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것들만 배워야 한다. 무엇보다 종교를 과학의 가르침과 조화롭게 발달시켜 나가는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의 신비를 받아들이거나 창조와 섭리, 천사와 악마, 죄와 속죄, 천국과 지옥 같은 히브리적 개념을 믿으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

진화론적인 심리학에 기초한 어린이에 대한 고려가 오늘날 아무리 보편적이 되었다고 해도 반드시 위의 내용과 같은 견해로 이끄는 것은 아니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고 가정해도 그것은 단지 총명이 어두워지고 오류와 속임수의 능력에 굴복 당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 즉 사람이 핑계치 못할 정도로 충분하면서도 죄를 인하여 흐려지고 완전한 진리를 반사하지 못하는 그런 계시를 읽은 결과라는 것을 나타내 줄 뿐이다. 우리가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의 빛 가운데 있을 뿐이므로 우리는 바로 인도받기 위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5) 교육의 특성

교육은 근본적으로 기독교적이어야 한다. 성경은 인간의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필요들을 다루며, 인간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다루고 있어 건전하고 만족할 만한 것이다. 창세기 18:19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서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축복이 복종의 길을 통해서 누려지고 불복종은 죽음을 불러온다는 중요한 교훈에 대한 정말 효과적인 교사가 될 수 있기 위하여 계시받아야 한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

리가 들을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와의 영예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시 78:2-7)" 진정한 축복의 약속을 잉태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교육이다. 이것이 단지 '행할 길'이 아니고 '마땅히 행할 길'임을 잘 분별하여야 하며 이것은 성경에 따르면 언약의 길이다.

a) 어린이의 본질과 교육

성경은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의 개념을 인간 영혼에서 지워버릴 수 없다고 말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무소부채하신 지극히 높으신 자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분리시키는 것은 그로 인간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속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며, 특별히 어린이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구성하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자질들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가 되기를 중단했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여전히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이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여전히 진. 선. 미에 대한 분명한 애호를 보여주며 그 내면에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의식과 종교적인 행위에 종사하려는 강한 충동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언약의 자녀들 속에서 역사하며 - 모든 언약의 자녀들 속에서라고 말하지 않았다 - 죄로 인하여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보는 안목을 지녀야 한다.

b) 권위에 대한 기독교적 개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관계에서 그가 자신의 해석을 완전한 진리로서 나타낼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가? 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권위를 행사할 때 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는 일이 되지 않는가? 권위와 자유는 명백히 상호 배타적이라 생각된다. 진정한 권위는 유한한 인간의 인격 앞에 완전한 하나님의 인격을 두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르쳐지지 않는 한 아무 것도 가르쳐 질 수 없으며 권위를 가지고 가르쳐지지 않는 것은 가르쳐 질 수 없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것이 바로 교사의 위치를 어렵게 만드는 동시에 무한히 값있게 해주는 점이다.

일반 교사들은 어린이를 무한한 가능성의 연속성 앞에 두고 그러한 가능성들과 관련하여 취해야 할 가장 현명한 태도에 대하여 말해줄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들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한다. 그 결과 어린이는 인격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기독교인 교사는 자신을 알고 지식을 알고 또 어린이를 안다. 교사의 사역에 대한 완전한 결심과 영원한 보상에 의한 사명 속에서 노력한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세대는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음을 자각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의 교육에 모든 희망을 건다. “스스로에 대해 신뢰를 갖지 못하는 세대는 자식을 교육에 몰입시킨다. 또한 조급하고 신경질적인 기능적 교육이 개념적 교육을 대신하고 있다. 교육은 공허함에 대한 준비를 시도함으로써 모든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독교 교육은 개념적 교육임을 알 수 있다. 기독교적 바탕 위에서 성장하는 인격은 그 접촉하는 환경 속에서 보증을 얻게 될 신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념적이며, 그 안에서 기능적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기독교 유신론적 인생관 및 세계관에 대한 개념이 교육과정의 중심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언약적 인격발달을 구성하는 지식을 가지고 시-공간적 사실을 다루어 사실들과 법칙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인격 개념의 패턴 속에 설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단지 추상적이고 비지성적인 지식으로 구성된 기능적 교육으로만 끝나게 된다.

III. 맺음말

기독교 교육의 특성을 뚜렷하게 구별짓는 개념은 창조의 개념이며 창조의 가장 기본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다. 창조는 우리 자신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지어져야 하며 또한 보이는 우주와 연관지어져야 한다. 또 창조의 개념이 언약 개념의 전제로 파악될 때 창조론에서 교육에 대한 신적 규정을 찾아야 하며, 기독교교육에 대한 규정을 그의 백성을 향하여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 안에서 탐구하고 발견해야 한다. 이것이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을 추구하는 바른 순서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직접적 명령이 언약 위에 기초된 것으로 나타나고 언약은 창조 위에 기초된 것으로 나타날 때, 교육 프로그램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확신이 증가 될 것이다.

정작 교육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보다 앞서우고, 우주를 그 창조주에게로 돌려서 만물의 통치자의 대리인이 되는 이것이 인간의 임무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창조와 교육이란 무엇인지, 즉 언약은 창조 속에 함유되어 있으며 창조는 하나님의 개념 속에 함유되어 있으므로 하나님 없이는 사람의 생명과 경험은 전적으로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학과 인류학은 사실욕(事實慾)의 무수한 형태들을 취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성에 유혹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기독교는 회복의 종교이다. 그리스도는 인간과 그의 세계를 회복시키고 본래의 위치로 이끌어 창조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신다.

이러한 유아기독교교육을 위해 우리는 믿음을 우리의 프로그램과 관계해서 말하게 되며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도 함께 다루게 된

다. 그래서 믿음과 프로그램이 서로를 떠 받쳐 주는 밀접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두 주제들을 논해야 한다: (1)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한 주제적인 능력으로서의 우리의 믿음 (2) 믿음의 깊이와 프로그램의 높이와 넓이 사이의 밀접한 관계.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복종, 믿음의 인내, 믿음의 소망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설정하신 프로그램을 인간이 어떻게 실행하기를 원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복종의 방법을 통하여 어떻게 그 이상에 도달하도록 하셨는가? 다른 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임무인 인간 자신의 인격발달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 이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능력을 계발시키는 방법을 통한, 창조의 초기에 있었던 것 이상으로 자발적이고 확고한 적극적인 복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심리학이 중요하게 다루는 장래의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복종하여 응답하도록 반응하게 하셨다. 이는 사람에게 습관이 된다. 이 습관은 인간 편에서의 환경에 대한 점진적이고 보다 자의식적인 반응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는 자녀들이 율법적인 권위에 대한 절대적 복종의 습관을 지니고 하나님에 대한 불타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그들이 견고해져서 '창조된 자아', '창조적 인격'으로서 더욱 더 자아적이고 인격적으로 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발전시키는 세상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오래 참음의 덕목을 가지고, 화를 내는 대신 기도하기를 배우고, 거친 말 대신 주의 이름으로 탄원하며, 우리의 적이 멸망하는 것을 경험할 때 적들도 동정받을 자로 보아야 한다. 또 미래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여 즉각적인 결과와 별다른 발전을 보지 못하는 경우까지도 우리의 수고를 계속하도록 용기를 분돋아야 한다. 우리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믿음인 이유는 믿음 없이는 볼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기초가 다져지

고 우리의 수고가 끝나는 때는 천국이 도래되고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때이다. 우리는 많은 환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영광에 들어갈 때 우리의 행하는 것이 우리를 따를 것이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교육의 본질과 필요성에 대한 성경적 원리에 의한 기초 확립을 통하여 교육적 사고를 견고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궁극적 기준에 좀 더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간구하며 인도하심을 받아 유아기독교교육의 기초의 실제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88